

2002년 첫 대회... 재외동포 비즈니스 장

한상과 한상대회



“드라마 ‘상도’를 기억하시나요? ‘상도’의 주인공처럼 한상(韓商)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국을 알리고 판매하는 재외동포를 말합니다.”

29일 호남권 최초로 광주에서 열린 ‘제12차 세계한상대회’에는 세계 45개국 3000여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광주를 찾은 1000명의 공통점은 ‘한민족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 무역은 물론, 의식업과 IT, 법조, 의료, 컨설팅, 서비스 등 일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한인 경제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종사자가 ‘한상’의 호칭을 얻는다.

현재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는 전 세계 170여국 72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여개국, 60여개의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한상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다. 세계한상대회는 이들 재외동포를 한민족 경제자산으로 결집하기 위해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내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의 장(場)이다.

◇한상대회의 역사는 지난 2002년 처음 열린 한상대회는 초기만 하

‘리딩CEO 포럼’ 주축... ‘영비즈니스리더’ 차세대 네트워크

호남지역 최초 대회... 지역 중소기업 해외판로 확보 큰 도움

더라도 ‘재외동포 경제인 모임’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3000만달러였던 1회 대회의 투자유치 실적이 3차 대회에 들어서 8000만달러의 상담을 이끌어 냈고, 5차 대회에는 3억5800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면서 국내외 비즈니스의 장인 동사에 이의 창출이 가능한 행사로 성장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한상대회의 비즈니스 교류 및 위상에 대한 입소문을 타고 ‘개인’의 참여가 증가하는 한편, 과거에는 미주 지역 경제단체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아시아와 유럽 등 대륙별 한상(韓商) 기업인의 참여도 확산됐다. 이 기간 1회 대회 28개국 968명에 불과했던 참가자는 45개국 3000여명까지 늘었다.

특히 한상대회가 해외 네트워크가 미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좋은 기회로 작용하면서 국내기업들의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기업 해외진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한상대회 유치 열기도 한층 뜨거워졌다. 이번 대회 개막식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는 것도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한다.

◇대회를 주도하는 한상은=한상 네트워크의 주요 구성원 가운데 한

상대회를 이끄는 이들이 모인 곳이 ‘리딩CEO 포럼’이다. 12개국 38명으로 구성됐으며 한상 중 세계 유수기업이나 사회적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가 가입돼 있다. 한상네트워크 사업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의견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모국에 대한 기여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까지 한다. 한상이라고 누구나 포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이나 상공, 경제, 금융 등 관련 분야에서 확고한 사회적 위치를 지녀야 하며 국제적 인지도와 동포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도 조건으로 작용한다.

광주 출신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영산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종범 회장이나, 라오스의 국민기업 ‘코라오’(KOKAO)의 오세영 회장, 미국 애틀란타 최고 슈퍼마켓 브랜드인 ‘뉴포드 하이웨이 파머스 마켓’을 설립한 신영호 회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카페 원료의 70%를 공급하는 일왕빈 회장 등이 리딩CEO에 속한다.

45세 미만의 신진 한상이 주축이 된 ‘영비즈니스리더포럼’(Young Business Leader Forum)도 떠오르는 한상 네트워크다.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이 포럼은 각국에서 활동 중인 젊은 유망한 재외동포 경제인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 올해엔 역대

최다인 120명이 광주를 방문했다.

◇한상대회의 효과=대회가 열릴 때마다 참여한 국내 업체들은 업종을 떠나 한상과의 교류를 통해 ‘특별한 재미’를 맛봤다.

변기시트를 만들던 중소기업 누리크린은 중국한국인상회와 계약, 베이징올림픽 당시 10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인삼 가공업체인 보문 P&F는 8차 대회에서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의 한상과 계약에 성공, 연간 150만 달러의 교역을 진행중이고, BBQ 치킨으로 알려진 제너시스 또한 5차 대회 참가 이후, 중남미 수출길을 뚫었다.

이번 대회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호남지역 최초의 대회인 만큼, 한상들이 앞다뮈 지역기업의 제품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하는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은 유럽 법인장을 동행시켜 광주시 특별산업전시관을 주의깊게 둘러봤으며 광주의 한 금형기업과 심도 깊은 수출상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금형업체인 디케이산업의 김보근 회장은 “그동안 여러 국제 행사에 참가했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는 한상대회로 여겨진다”며 “수출 실적과 판로 확보 관련 상담 실적 결과가 나오면 지역 산업계에 충격이 적잖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도, 31일 역대 최대 규모 국감 ‘초진장’

국토위 의원 31명 참석... F1 적자 등 집중 질타 예상

전남도가 개청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전에 여야 의원들의 질문지를 입수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을 국회에 급파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도 국감의 단골 메뉴인 F1 코리아 그랑프리 적자를 줄이지 못했고, 최근 장성 부근수가 친환경 인증 과정에 검찰에 구속되는 등 전남도 현안사업이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1명이 전남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

다. 애초 2개 반으로 나눠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인천시 국정감사가 전국체전 준비로 취소되면서 주중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31명 전원이 전남도청을 찾게 됐다.

전남도청에 대한 국토·교통 분야 국정감사는 지난 1999년 이후 14년 만이며, 3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최대 규모다.

통상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의원실에서 피감 기관에 질문지를 사전에 전달하는데, 지난 28일 열렸던 안전행정위원회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돌발 질문에 진땀을 빼기도

해 오는 31일 국감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8일 6명 규모의 국감 준비팀을 국회에 파견해 의원실을 돌며 질문지를 받고 있으며, 실·국별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위의 전남도 국감 시간(3시간)이 부족, 의원당 질의 시간이 6분 남짓에 불과해 형식적 국감에 그칠 우려도 낳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31일 오전 11시~12시30분 질의·응답을 한 뒤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에서 열리는 한옥건축박람회를 현장시찰 하고, 오후 4시~5시30분 다시 국감을 진행 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수 담근 김치로 나눔 실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 동구지구협의회(회장 양복순) 회원들이 29일 동구 동명동 푸른길에서 적십자와 결연한 관내 취약계층 200세대에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의 맛과 멋 담아냈습니다”

한상대회 만찬 준비 전남대 신말식 교수

“나주곰탕은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떡갈비는 당장 세계화 시켜도 손색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광주를 찾아온 한상(韓商)들이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개막날 오찬과 만찬을 즐기며 내린 평가다. 수 천여명의 엄청난 인원이 동시에 식사하기에 지난 한상대회에선 대부분 양식이 제공됐

다. 하지만 맛의 고향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한식이 상에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3개월 전부터 개막오찬과 광주시장 만찬을 준비한 신말식(58·여) 전남대 식품영양과학부 교수는 “해외에서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사람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한식 메뉴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광주의 맛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에 서 나오는 특산물과 재료를 아낌없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나주곰탕, 만찬은 떡갈비가 나왔다. 신 교수는 반상기에 개인상을 차린 뒤 기본찬을 미리 준비하는 식

으로 광주의 한식을 맛보게끔 꾸몄다. 오찬은 나주곰탕과 깍두기로 식탁을 차린 뒤 김치를 펼쳐서 만들어 장식했다.

대규모 인원이 먹기에 만찬은 더욱 특별히 만들었다. 죽과 전복냉채를 전제요리로 내놓은 뒤 마르기 쉬운 떡갈비를 연잎으로 둘러싸 축출함을 유지했다. 가을을 대표하는 토란국에 만찬주는 광주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준비했다.

신 교수는 “수 천명에게 동시에 한식을 내놓은 일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번 한상대회를 통해 모두가 한식을 즐길 수 있는 ‘한식세계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

꽃시장 한상대회서 지역현안 해결 건의

세계수영선수권 지원·야문화전당 정부 운영 등

강운태 광주시장이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 5대 지역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 지원 등이 담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국회의원 계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

강 시장은 이날 2015년 개관 예정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에서 운영해 줄 것과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광주은행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자본에 대한 인센티브(우선협상권) 부여 등도 함께 건의했다.

강 시장은 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위한 자동차 산업임대 전용국가산단 조성과 광주·서울·창원이 유치 경쟁중인 한국민중주의 전당의 광주 건립 등도 요청했다. 정 총리는 강 시장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공공기관 내년 1만7000명 채용

공공기관이 내년엔 1만7000명 가량을 새로 뽑는다. 29일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계획을 보면, 전체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1329명 늘어난 1만6701명이다.

기관별로는 준정부기관이 4618명, 공기업이 4449명으로 올해보다 각각 891명(23.9%), 774명(21.1%) 는다.

신규 채용이 많은 곳을 보면,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서울대학교병원(1121명), 부산대학교병원(702명), 전남대학교병원(380명), 경북대학교병원(326명) 등 대학병원이 두드러진다. 한국전력공사(734명), 한국수력원자력(824명)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전KPS(555명)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도 눈에 띈다. /연합뉴스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및 제(제)013호-증-2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수시 2차	정시
인문	신학과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7	5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4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5
총계		31	39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 2차모집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전형일: 2013. 11. 21(목)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전형일: 2014. 1. 3(금)

특별전형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원용이 있는 대학·원용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조로 36

www.kwangshin.ac.kr